

소제물에 대한 이상과 누림

성경: 레 2:1-16, 6:14-23, 요 6:57, 63, 12:24, 고전 10:17

I. 소제물은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사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2:1-16.

- A. 소제물의 주된 요소인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곱고 온전하며 부드럽고 균형 잡혔으며 모든 면에서 합당하여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과 일상의 행동이 아름답고 뛰어나다는 것을 상징한다 — 레 2:1, 요 18:38, 19:4, 6하, 눅 2:40, 23:14, 사 53:3.
- B. 소제물의 기름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이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 레 2:1, 눅 1:35, 3:22, 4:18, 히 1:9.
- C. 소제물을 만들 때 고운 가루와 기름을 연합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령과 연합된 것을 상징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사람이 되었다. 이 하나님-사람은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갖고 계신데,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은 각각 구별되며, 제삼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는다 — 레 2:4-5, 마 1:18, 20.
- D. 소제물에 넣은 유향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한다. 유향을 고운 가루 위에 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분의 부활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 레 2:1-2, 비교 마 2:11, 11:20-30, 눅 10:21.
 - 1. 사복음서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활을 하셨으며, 그분께서 받으신 고난들을 통해 부활을 표현하셨다 — 비교 요 18:4-8, 19:26-27상.
 - 2. 영으로 충만하고 부활로 적셔진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향기, 곧 하나님께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누림과 완전한 만족을 드리는 향기였다 — 레 2:2, 눅 4:1, 요 11:25, 마 3:17, 17:5.
- E. 소제물에 쳐진 소금은 그리스도의 죽음 또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고, 세균을 죽이며, 보존하는 것이다 — 레 2:13.
 - 1. 주 예수님은 항상 소금이 쳐진 생활, 십자가 아래 있는 생활을 하셨다 — 막 10:38, 요 12:24, 눅 12:49-50.

레위기

메시지 4 (계속)

2. 심지어 그분은 실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시며 그분 자신과 그분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시고 부활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사셨다 — 요 6:38, 7:6, 16-18, 비교 갈 2:20.
 3.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 요인은 소금으로 상징된 십자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 된다 — 비교 히 13:20.
- F. 소제물에 누룩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죄나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 레 2:4-5, 11상, 고후 5:21, 히 4:15, 뱀전 2:22, 눅 23:14, 비교 고전 5:6-8.
- G. 소제물에 꿀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천연적인 애정이나 천연적인 선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 레 2:11하, 마 10:34-39, 12:46-50, 막 10:18.

II. 소제물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의 복사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예표한다 — 레 2:4, 시 92:10, 뱀전 2:21, 롬 8:2-3, 11, 13.

- A. 우리가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먹은 그것이 되고 우리가 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 요 6:57, 63, 고전 10:17, 빌 1:19-21상.
- B.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 안에 구체화되신 그 영을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 생명과 인간 생활을 먹고 예수님으로 조성되며,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우리의 인간 생활이 된다(엡 6:17-18, 롬 15:16, 엡 5:26, 갈 6:17). 이러한 인간 생활에는 신성하게 부요해진 그분의 인성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예수님의 인성은 모든 의를 이룬다 — 마 3:13-15.
 2. 예수님의 인성은 안식할 곳이 없다 — 마 8:20.
 3. 예수님의 인성은 마음이 겸허하다 — 마 11:29.
 4. 예수님의 인성은 연약한 이들을 사랑한다 — 마 12:19-20.
 5. 예수님의 인성은 융통성이 있다 — 마 17:27.
 6. 예수님의 인성은 다른 이들을 섬긴다 — 막 10:45, 1:35, 10절의 각주 1 참조.
 7.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핀다 — 눅 4:16-22, 7:34, 19:1-10.
 8. 예수님의 인성은 부주의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다 — 막 6:39-40, 요 6:12.
 9. 예수님의 인성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 요 7:6.
 10. 예수님의 인성은 유일무이하다 — 요 7:46.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4 (계속)

11. 예수님의 인성은 울어야 할 때를 안다 — 요 11:33, 35.
12. 예수님의 인성은 겸손하다 — 요 13:4-5.

III. 소제물은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인 교회생활을 예표한다 — 요 12:24, 고전 10:17, 12:24, 갈 2:20, 빌 1:21상.

- A. 그리스도의 생활과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총체, 곧 단체적인 소제물인 교회생활로 귀결된다 — 레 2:1-2, 4, 고전 12:12, 24, 10:17.
- B. 우리는 소제물인 교회생활을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다.
 1.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시다 — 고전 1:2, 9, 30.
 2.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 사람이 되십시오."(고전 16:13)라고 당부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높은 인성, 높여진 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26-27, 13:4-7).
 3. 교회생활은 그 영에 의해 그리고 그 영으로 기름 발라지고, 그 영과 합해진 인성의 생활이다 — 고전 2:4, 12, 3:16, 6:17.
 4.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 고전 15:10, 45하.
 - a. 우리는 반드시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에 대하여 죽음으로,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 고전 15:31, 36, 요 12:24-26.
 - b.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신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부활의 실재를 나타내야 한다 — 고전 7:24, 21-22상, 10-13.
 - c.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 생명과 능력이신 주님에 의해서 수고해야 한다 — 고전 15:10, 58.
 5.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 고전 1:9, 18, 22-23상, 비교 막 15:31-32상.
 6.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누룩 없는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 고전 5:6하-8.
 7. 교회생활 안에서 타고난 생명은 반드시 소금에 의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죽임당해야 한다 — 고전 15:10, 12:31, 13:8상, 고후 5:16.
 8. 하나님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소제물이 되어 그분을 만족하게 하고, 날마다 성도들에게 충분한 공급을 주기를 갈망하신다. 이것은 교회생활이 우리의 매일의 공급이 될 것이므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생활을 먹을 것임을 의미한다.

레위기

메시지 4 (계속)

IV. 우리는 소제물에 관한 법을 보아야 한다(레 6:14-23). 제물에 관한 법은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규례와 규정이다. 제물의 실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물에 관한 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생명의 영의 법과 일치한다(롬 8:2). 제물에 관한 법은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서도 무질서해지지 않고 생명의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비교 고전 9:26-27, 11:17, 27-29, 갈 6:15-16, 빌 3:13-16.

A. ‘여호와 앞’은 소제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고, ‘제단 앞’은 제단이 십자가의 예표이므로, 소제물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과 연관되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6:14, 비교 히 13:10.

B. 소제물 중에서 고운 가루 일부와 기름의 일부와 유향 전부는 하나님의 음식이었다(레 2:2, 9, 16). 이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온전하고 영으로 충만하고 부활로 적셔진 생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음식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뜻은 하나님을 매우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기념물이 되었다(6:15). 소제물의 나머지 부분, 즉 유향이 빠진 고운 가루와 기름은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었다(2:3, 10).

1. 번제물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음식인 데 반해(민 28:2), 소제물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우리의 음식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몫이기도 하다. 합당한 경배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며, 이러한 만족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레 2:2, 비교 요 4:24).

2. 모든 소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바쳤는데(레 2:4-9), 이것은 음식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신,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시험하는 불을 통과하신 것을 상징한다(계 1:15). 레위기 2장의 불은 태워 버리는 불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히 12:29), 이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소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족시키는 음식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상징한다(레 2:2).

C. 소제물은 평범한 음식이 아니었다. 소제물은 오직 교회생활 안에서 실질적으로 참되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이들을 위한 음식이었다 — 레 6:14-16, 롬 1:9, 15:16, 벧전 2:9.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4 (계속)

- D. 소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은 우리의 봉사를 위해 죄(누룩)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분별된 거룩한 곳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회막이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회막의 뜰에서 소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교회생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6:16.
- E. 소제물을 구울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하여 수고할 때에 결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6:17.
- F. 소제물에 관한 법을 설명하면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와 우리의 행위에 나타난 죄들(잘못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6:17, 4:3.
- G.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강한 이들(남자)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곧 하나님의 제사장들(아론의 아들들)이어야 한다 — 레 6:18.
- H.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소제물을 바친 것은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제사장의 봉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6:20.
- I. 매일의 소제물인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의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바쳐졌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최고의 몫, 곧 십분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누림이 우리의 제사장 봉사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6:20.